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17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산동날개매미충’ 예찰·방제 철저히 -3면(24.4.8.)	친환경연구과	농업인신문
○	감귤 해충 ‘산동날개매미충’ 주의해야 -10면(24.4.8.)	친환경연구과	농촌여성 신문
○	“우리가 해결허쿠다” ... 애로사항 당일 해결-9면(24.4.8.)	동부농업기술센터	한국영농 신문
○	안덕면생활개선연합회, 반찬 나눔-9면 (24.4.9)	서부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신문
○	도 농기원-대학-연구원 미래농업 기술 개발 ‘온 힘’ -1면	미래농업육성과	제주매일
○	스마트팜으로 농가 일손 덜고 시설 재 배에 재생에너지 쓰고-6면	미래농업육성과	한라일보
○	소득 작물로 주목받던 딸기, 고령화· 인력난에 ‘주춤’ -1면	농산물원종장	제주매일
○	도농기원 “감귤 품종 육성 최선” -6면	과수연구과	뉴제주일보
○	2030년까지 감귤 신품종 5개 추가 육성-1면	과수연구과	제민일보
○	‘감귤 주산지’ 제주, 품종 추가로 종자 주권 강화-6면	과수연구과	제주매일
○	2030년까지 감귤 신품종 5개 추가 육성-3면	과수연구과	제주일보
○	기능성·재배 쉬운 만감류 5개 품종 육성-1면	과수연구과	한라일보
○	종자용 땅콩 기계 탈피, 노동력·비용 절감 효과 확인-6면	동부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종자용 땅콩 기계탈피 ‘효과’ -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땅콩농업 현장에 기계화 바람 부나 관심-10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기고]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14면(양성년)	농산물원종장	제주매일
○	고령·여성농가 마늘 파종 기계작업 대행 지원-7면	-	제주매일

(농업인신문: 2024년 4월 8일)

○ ‘산동날개매미충’ 예찰·방제 철저히-3면

‘산동날개매미충’ 예찰·방제 철저히

제주 감귤원에 피해...황색끈끈이트랩 설치 4·8월 어린 약충시기에 유기농업자재 살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친환경 감귤원에 피해를 입히는 ‘산동날개매미충(임시명칭)’에 대한 세심한 예찰과 적절한 방제를 당부했다.

제주농기원은 따르면 ‘산동날개매미충’은 2012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제주지역에서는 2017년 비농경지(산림)에서 발견된 후

2019년 친환경 감귤원에서 발생했다.

산동날개매미충의 성충과 약충은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 먹고 배설물로 인한 그을음 증상을 유발한다. 성충에는 톱니 모양의 산란기관이 달려있어 가지와 잎맥을 파내고 산란하며 산란 피해는 가지마름, 고사, 부러짐 등으로 나타난다.

현재 제주도내 발생 및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지만 일부 관리가 소홀한 과수원과 친환경 감귤원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 황색끈끈이트랩을 1.5m 높이에 설치해 성충의 예찰 및 방제에 이용하고, 산란한 알은 전정 등을 통해 제거하며, 고삼, 님 추출물 등의 유기농업자재를 어린 약충시기(4·8월)에 살포해 방제해야 한다.

제주농기원은 지속적인 예찰과 동시에 발생지 및 주변 지역에 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한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산동날개매미충의 발생 정보와 방제방법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4.8.

박정완 농업인신문 3

(농촌여성신문: 2024년 4월 8일)

○ 감귤 해충 ‘산동날개매미충’ 주의해야-10면

감귤 해충 ‘산동날개매미충’ 주의해야

제주농업기술원, 방제정보 리플릿 제작 배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친환경 감귤원에 피해를 입히는 ‘산동날개매미충(임시명칭)’에 대한 세심한 예찰과 적절한 방제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2020년부터 3년간 감귤 해충 종류, 발생 시기, 피해 등을 조사한 결과, 새로운 해충 5종을 포함해 해충 60종을 확인했다.

이 중 산동날개매미충의 성충과 약충은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고 배설물로 인한 그을음 증상을 유발한다. 성충에는 톱니모양의 산란기관이 달려있어 가지와 잎

맥을 파내고 산란하며 산란 피해는 가지마름, 고사, 부러짐 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황색끈끈이트랩을 1.5m 높이에 설치해 성충의 예찰과 방제하고 산란한 알은 전정 등을 통해 제거하는 한편, 고삼 또는 님 추출물 등의 유기농업자재를 어린 약충시기(4·8월)에 살포한다.

농업기술원은 산동날개매미충의 발생정보와 방제방법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누리집(agri.jeu.go.kr/agri/index.htm)에 게재할 예정이다.

4.8.

김정자 기자 · le 농촌여성신문 10

(한국영농신문: 2024년 4월 8일)

○ “우리가 해결허쿠다” ... 애로사항 당일 해결-9면

“우리가 해결허쿠다”... 애로사항 당일 해결

제주동부농기센터, 현장 기술지원

제주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현)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걱정 맴싸, 우리가 해결허쿠다' 프로젝트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5개 팀이 8개 분야의 현장 기술지원에 나선다.

농업인이 현장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당

일 현장을 방문해 진단·처방에 나서며, 추가 진단 필요시 1일 이내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처방에 그치지 않고 차후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6개 작목, 243건의 현장 기술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작목별로는만감류, 분아별로는 이상증상에 대한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다. 또한 현장 당일 해결 비율이 77%, 민원 해결 소요기간도 평균 1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현

장 애로사항의 신속·정확한 해결로 관내 농업인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았다.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채소·식량·특용작물(760-7621~4) ▲감귤·과수(760-7641~3) ▲농촌융복합(760-7631~2) ▲농업기계화(760-7651~3)으로 요청하면 담당팀에서 신속하게 응대한다.

이정배 인력육성팀장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

4.8.
한국영농신문 9

(서귀포신문: 2024년 4월 9일)

○ 안덕면생활개선연합회, 반찬 나눔-9면



안덕면생활개선연합회, 반찬 나눔

안덕면생활개선연합회(회장 김난숙)는 지난 5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내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을 위해 장아찌 120여 개를 직접 만드는 **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4.9.
서귀포신문 9

(제주매일: 2024년 4월 17일)

○ 도 농기원-대학-연구원 미래농업 기술개발 ‘온 힘’ -1면

도 농기원-대학-연구원 미래농업 기술개발 ‘온 힘’

딸기 우량묘 자체 공급체계 구축 등 3대 혁신과제 추진

미래농업육성을 위해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대학, 연구원 등이 중지를 모아 농업기술개발·보급 혁신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농기원은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농가·민간단체 등과 현장 중심의 실용적 성과 도출을 위해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혁신과제에 대한

협업에 들어갔다.

올해 추진 혁신과제는 △데이터 기반 작물 최적 생육관리 모델 개발 △농업분야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 연계 RE100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도내 딸기 우량묘 자체 공급체계 구축 등 3가지로 요약됐다.

제주매일 4.17

(한라일보: 2024년 4월 17일)

○ 스마트팜으로 농가 일손 덜고 시설 재배에 재생에너지 쓰고-6면

스마트팜으로 농가 일손 덜고 시설 재배에 재생에너지 쓰고

농기원, 미래농업 대응 체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능형 스마트농업, 농업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딸기 우량묘 자체 공급 등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인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술 개발·보급 혁신 프로세스’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혁신과제로 ▷데이터 기반 작물 최적 생육관리 모델 개발 ▷농업분야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coESS) 연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도내 딸기 우량묘 자체 공급체계 구축 등 3가지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미래농업 대응부처로 데이터 기반 작물 최적생육 관리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이 작물별 최적의 생육상태를 자동 제어하는 지능형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재배농가의 전력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은 현장 애로기술 해결 부처로 딸기 우량묘의 도내 자급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원종장에서 조직을 배양 중이며 2026년에는 농가에서 자체 육묘 시설을 이용해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제주의 딸기 재배농가 대부분은 딸기묘를 도외에서 구입해 오는데 어렵게 구입한 묘의 상태가 불량해 생산성 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딸기묘 구매과정에서는 육안으로 뿌리 훼손이나 병충해 등 확인이 잘 되지 않지만, 식재 후 뿌리 부분에 병이 걸리거나 탄저병에 걸린 상태에서 구매해 농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지역 딸기 재배농가는 140곳으로 재배면적은 47ha 규모다. 한동안 재배 농가가 늘었으나 현재는 정체 상태다. 기존 농가들은 인력 소요 등으로 작목을 변경하고 있으며, 신규 농가가 그 자리를 채우는 실정이다.

4.17. 백금탁기자 |한라일보 6면

(제주매일: 2024년 4월 17일)

○ 소득 작물로 주목받던 딸기, 고령화·인력난에 ‘주춤’ -1면

소득 작물로 주목받던 딸기, 고령화·인력난에 ‘주춤’

도외서 구입 딸기 모종 상태 불량...생산성 하락 영향
작목 전환 농가 잇따라 재배면적 ‘정체’...소비도 감소

제주지역 소득 작물로 주목받던 딸기가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재배면적이 정체되고 있다. 오랫동안 딸기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재배를 포기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140여 농가가 47ha 규모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한 때 소득작목으로 주목받던 딸기가 최근 몇 년 사이 재배면적이 주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딸기 재배를 기피하는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도내 딸기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딸기 묘를 도외에서 구입해 오는데, 어렵게 구입한 모종 상태가 불량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농민들이 딸기묘를 구입한 지역은 과거 전남과 경남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충청과 강원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딸기묘가 눈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심은 다음부터 뿌리에 병(탄저병)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딸기 농사를 10년 넘게 지어온 박태환씨는 “지난해 중

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모종이 많이 죽어 버렸고, 그마저도 상태가 좋지 않아 구입해온 모종이 잘 자라지 못해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딸기는 새벽에 수확하는데 일이 힘들어서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 주변만 봐도 2010년대 초반에는 약 40농가였던 딸기 농가가 현재는 20농가로 반토막 났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김모씨는 “모종에 문제가 많아서 딸기를 재배하기도 매년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제주에서 모종을 키우자니 습도가 높아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도 딸기 농사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딸기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은 기존 하

우스 시설에 블루베리, 망고, 만감류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시 아라동 지역은 망고 상승과 고령화 등으로 농사를 포기하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규 농민들은 자금 회전이 쉽다는 이점 때문에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과 농산물원종장 등은 딸기 모종이 불량하다는 농민 우려에 따라 ‘도내 딸기 우량묘 자체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딸기 재배 농가 대부분은 딸기묘를 도외에서 구입해 오는데 묘의 상태가 불량해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농산물원종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6개 부서와 딸기 농가, 4.17. 충청 등의 유관기관 전문가 제주매일 4.17.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뉴제주일보: 2024년 4월 17일)

○ 道농기원 “감귤 품종 육성 최선” -6면

道농기원 “감귤 품종 육성 최선”

2030년까지 5개 신품종 추가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와 재배 농가가 모두 만족하는 감귤 신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011년 감귤육종센터를 설립한 후 지난해까지 가을향, 달코미, 설향, 우리향, 맛나봉, 레드스타 6개 품종을 개발했으며 2030년까지 5개 신품종을 추가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감귤 소비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감귤 품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17.

현대성 기자 cannor 뉴제주일보 6



신품종 감귤 우리향.

(제민일보: 2024년 4월 17일)

○ 2030년까지 감귤 신품종 5개 추가 육성-1면

2030년까지 감귤 신품종 5개 추가 육성

기능성 성분·병해충 저항성 ↑
이상기후 안정재배 품종 목표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은 16일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개 신품종을 추가 육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1년 감귤육종센터

설립후 고품질 감귤을 목표로 지난 해까지 6개 품종을 개발한 상황이다.

이중 '가을향' '달코미' '설향' 등을 품종등록하고 '우리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에 대한 품종출원을 마친 상태다. 이들 품종들은 수확기가 서로 다르면서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다는 특징을 갖는다.

단, 향후 2030년까지 새롭게 육성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육종 방향을 전환한다.

먼저 안토시아닌(anthocyanin)과 라이코펜(lycopene) 등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기존의 블러드 오렌지, 자몽류와는 달리 껍질을 벗기기 쉬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이상기상에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도록 부피(감귤껍질이 부풀어 껍질·과육이 분리되는 현상)

발생이 적은 온주밀감과 궤양병에 강해 노지재배가 가능한 만감류를 개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육성후 보급을 확대해 국내 육성 품종의 점유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승용 농업연구사는 "감귤 소비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감귤 품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17.
제민일보 1기자

(제주매일: 2024년 4월 17일)

○ '감귤 주산지' 제주, 품종 추가로 종자 주권 강화-6면

'감귤 주산지' 제주, 품종 추가로 종자 주권 강화

도 농기원, 가을향맛나봉설향 등 6종 내년부터 농가 보급
2030년까지 노지재배 가능한 만감류 5개 신품종 추가 개발

감귤 주산지 제주가 고품질 감귤 품종 추가개발로 종자 주권을 강화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지난 2011년 감귤육종센터를 설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개 품종을 개발했다.

지난 2021년 품종 등록한 △가을향과 2022년 나란히 등록한 △달코미 △설향 등 3종과 품종출원을 한 △우리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이다.

개발된 신품종들은 수확기가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로 서로 다르고 당도가 높으면서 신맛이 적은 게 특징이다.

도 농기원은 농가 실증재배를 마치고 도내 사업장을 둔 종자업체에 통상실시권을 이첩해 신품종 보급에 나섰다.

종자업체들은 신품종 묘목을 생산해

내년부터 1년생 묘목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도 농기원은 여기에 오는 2030년까지 5개의 신품종을 추가로 육성해 감귤산업의 지속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단순 먹거리를 뛰어넘어 기능성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반영해 블러드 오렌지와 자몽류와의 경쟁을 하면서도 껍질을 쉽게 까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는 목표다.

또한 이상기상에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껍질이 부풀어 껍질과 과육이 분리되는 '부피(浮皮)' 발생이 적은 온주밀감과 궤양병에 강해 노지 재배가 가능한 만감류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감귤 우리향

현재 도 농기원은 감귤 유전자원 529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품질과 기능성, 병 저항성 등을 조사하고 신품종 개발에 필요한 핵심 집단을 구성해 육종 기반을 마련해둔 상태다.

이와 관련 정승용 농업연구사는 "종자

채취와 육묘, 특성조사 등을 거쳐 계통을 선발하는 데 최소 10년이 걸린다"면서도 "감귤 소비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17.
제주매일 6기자

(제주일보: 2024년 4월 17일)

○ 2030년까지 감귤 신품종 5개 추가 육성-3면

2030년까지 감귤 신품종 5개 추가 육성

농업기술원 감귤육종센터

최근 10여 년간 6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개 신품종을 추가 육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농기원은 2011년 감귤육종센터 설립 이후 '고품질 감귤'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가을향, 달코미, 설향, 우리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6개 품종을 개발했다.

이어 신품종 보급 확산을 위해 농가 실증재배를 시행하고, 도내 묘목업체에 통상실시권을 처분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품종들은 수확기가 서로 다르면서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다고 농기원은 설명했다.

농기원은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5개 신품종을 추가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육종 방향을 전환했다.

우선 안토시아닌과 라이코펜 등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기존의 블러드 오렌지나 자몽류와 달리 껍질을 벗기기 쉬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감귤 신품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레드스타.

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농기원은 이상기상에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도록 부피(감귤 껍질이 부풀어 껍질과 과육이 분리되는 현상) 발생이 적은 온주밀감과, 궤양병에 강해 노지 재배가 가능한 만감류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승용 농기원 농업연구사는 "감귤 소비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감귤 품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농기원은 감귤 유전자

원 529종을 보유 중이며, 이들에 대한 품질과 기능성, 병 저항성 등을 조사하고, 신품종 개발에 필요한 핵심 집단을 구축해 감귤 육종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간 1만~2만 개의 꽃을 교배해 신품종 개발에 활용하는데 이후 종자 채취, 육묘, 특성 조사 등을 통해 계통을 선발하고, 특성 검정 및 최종 선발 등 1개의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최소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일보 3기자

(한라일보: 2024년 4월 17일)

○ 기능성·재배 쉬운 만감류 5개 품종 육성-1면

기능성·재배 쉬운 만감류 5개 품종 육성

도농업기술원, 2030년까지
달코미 등 6종은 개발 마쳐

제주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고 노지 재배가 가능한 만감류 개발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소비자와 재배 농가가 모두 만족하는 감귤 신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 감귤육종센터 설립 후 '고품질 감귤'을 목표로 2021년 가을향, 2022년 달코미, 설향 등에 대한 품종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우리향, 2023년 맛나봉, 레드스타 등의 품종을 출원

했다. 특히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2030년까지 5개 신품종 추가 육성을 목표로 육종 방향을 전환했다.

우선 안토시아닌(anthocyanin)과 라이코펜(lycopene) 등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기존의 블러드 오렌지, 자몽류와는 달리 껍질을 벗기기 쉬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이상 기상에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도록 감귤 껍질이 부풀어 껍질과 과육이 분리되는 현상인 부피 발생이 적은 온주밀감과 궤양병에 강해 노지 재배가 가능한 만감류를 개발할 예정이다. 4.17.

김도영기자 doyou@halla1n

한라일보 1면

(뉴제주일보: 2024년 4월 17일)

○ 종자용 땅콩 기계 탈피, 노동력·비용 절감 효과 확인-6면

종자용 땅콩 기계 탈피, 노동력·비용 절감 효과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현, 이하 센터)는 피땅콩 탈피를 수작업에서 기계 탈피로 개선한 결과 노동력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수동 땅콩 탈피기를 도입한 결과 1일 최대 480kg을 작업, 수작업 대비 16배의 작업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땅콩은 우도 지역의 주작목으로 판매용 땅콩은 농가가 보유한 자동 탈피기로 탈피 작업이 이뤄지지만 종자용 땅콩은 발아율을 높이고자



겉껍질을 수작업으로 제거해 왔다.

센터는 농가의 작업 효율을 개선하고자 무동력 자동 탈피기(사진)를 개발해 보급했으며 자동 탈피기를 보급한 종자와 수작업 종자의 발아율을 비교한 결과 모두 9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땅콩 재배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4.17.

현대성 기자 cann 뉴제주일보 6

(제민일보: 2024년 4월 17일)

○ 종자용 땅콩 기계탈피 ‘효과’ -2면

종자용 땅콩 기계탈피 ‘효과’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16일 피땅콩(가을에 수확한 겉껍질이 있는 꼬투리 땅콩) 탈피를 수작업에서 기계탈피로 개선한 결과 노동력과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고 밝혔다.

그간 종자용 땅콩은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 겉껍질을 100% 수작업으로 제거해왔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자동 땅콩 탈피기를 이용하면 종자

가 깨지거나 물리적인 상처·충격으로 발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동부농기센터는 개선 대책으로 수동 땅콩 탈피기를 도입했다.

수동탈피기를 사용할 경우 하루 30kg 가량의 작업량이 최대 480kg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시설하우스내에서 수작업한 종자와 기계탈피한 종자의 발아율을 비교한 결과 모두 94% 이상으로 나타나 땅콩 재배에도 4.17이 없을 것으로 봤다. 제민일보 2

(제주매일: 2024년 4월 17일)

○ 땅콩농업 현장에 기계화 바람 부나 관심-10면

땅콩농업 현장에 기계화 바람 부나 관심

종자 꼬투리 탈피 기계 도입 결과 작업량 16배 '효과' 동부농기센터, 전시포 운영·기술 홍보...부족 일손 해결

‘섬 속의 섬’ 우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땅콩농업 현장에도 기계화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현)는 종자용 땅콩 꼬투리를 벗기는 땅콩 탈피기를 도입해 작업에 활용한 결과 노동력과 비용은 크게 절감하면서 수작업에 버금가는 효과를 봤다.

우도지역 농민들은 주작목인 땅콩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수작업으로 겉껍질을 제거했다.

그러나 좌우 회전하는 무동력 수동 땅콩 탈피기를 이용한 결과 사람의 손으로 4.17배, 10월 17일 제주매일 10월 17일 경우 하루 30kg이던 작업량은 시간당 60kg씩 총 480kg으로 늘어나 16배 이상의 능률을 올렸다.

밭 186ha에 땅콩 종자 1만4880kg을

심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수작업 인건비 4960만원의 7.3%인 31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하우스 내에서 수작업한 종자와 기계를 이용해 껍질을 벗긴 종자 발아율도 각각 97.6%, 94.4%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땅콩 재배에도 무난하다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우도지역 땅콩재배 현장에 기계화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되는 농촌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우도 지역에 전시포를 운영하면서 기계탈피 기술을 홍보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애리 기자

(제주매일: 2024년 4월 17일)

○ [기고]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14면

기고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양 성 년

지난해 4월 이상 기온으로 과일이 익기도 전에 잎이 모두 떨어져 제대로 수확할 수 없었던 포도, 여름철 폭염으로 겉은 말짱했지만 속은 다 썩어 폐기해야만 했던 육지부의 복숭아와 자두. 전국의 농민들이 '기후폭탄', 즉 폭우, 가뭄, 냉해 등 온갖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농업 생산 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은 최일선에서 이러한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겪는 중이다.

농업은 기후에 아주 민감한 산업이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의 특성상 주변 환경은 곧 식물의 생존과 연관된다. 기후위기는 비단 한국의 일만은 아니다. 칠레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숲에 화재가 발생해 양봉 농가에 많은 피해를 줬고, 캄보디아에서는 농산물 생산량이 30% 가량 감소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고온과 집중호우로 두

류 작물의 작황 부진과 병해충 발생 피해를 받았다.

기후위기는 농업의 위기이며 이는 식량의 위기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은 기후 위기에 취약하다. 작물이 온갖 병해충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뭄, 고온 등의 스트레스에 강하거나 변화된 기후 생태에 적응하는 다양한 품종을 선발하고 육성해야 한다. 두 번째, 파종 및 이식시기를 조절하고 생산성이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세 번째, 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토양수분 보존 기술이나 홍수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침수, 침식 및 양분 용탈 방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MO 규제 완화로 종자 기업에 의해 씨앗 독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응해 식량 주권 및 농민의 종자권, 생물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며, 나 혼자 해결할 수도 없다. 어쩌면 이 위기는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며 인위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생물 보존과 농업 발전을 위해 힘을 나
아가야 하겠다.

제주매일 14

(제주매일: 2024년 4월 17일)

○ 고령·여성농가 마늘 파종 기계작업 대행 지원-7면



서귀포시는 마늘을 재배하는 고령·여성 및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마늘 기계작업(파종) 대행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여성농가 마늘 파종 기계작업 대행 지원

서귀포시, 최대 1ha 기준 작업 대행비 60% 지급

서귀포시는 마늘재배 고령·여성 및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상승,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마늘 기계작업(파종) 대행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17.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마늘
제주매일 7당 최대 1ha 면적 기준으로 작

업 대행비 270만원의 60%를 지원한다.
2개조 13명으로 구성된 전문 작업단이
기계작업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며 작년
31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희망 농
가는 오는 22일까지 대정읍·안덕면사
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고두성 기자